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아들을 보내신 사랑 II

(요 3:16-17)

이중윤 원로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본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해에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부정적 측면의 목적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강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2) 긍정적인 측면의 목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고, 불신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사고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 역사에 대한 대혁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포용적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뱉어 버리고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배신하고 뒤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가) 사랑의 폭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의 폭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사랑의 폭이 좁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사랑의 깊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독생자가 내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지만 독생자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다) 사랑의 항구성

하나님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는데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계획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시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주신 것이므로 그 사랑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라) 사랑의 실재성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크게 사랑하사’라고 하시지 않고 ‘이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댓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천국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 죄의 댓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바꾼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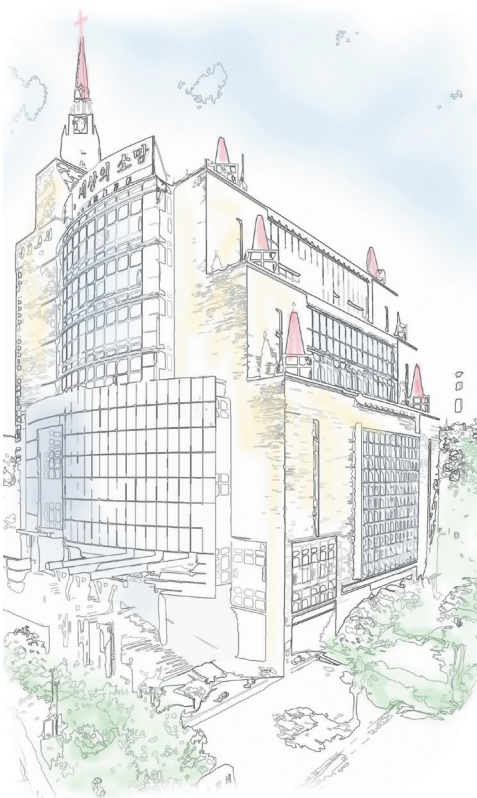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고’는 헬라어로 단순 과거형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거기서 끝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생이나 회생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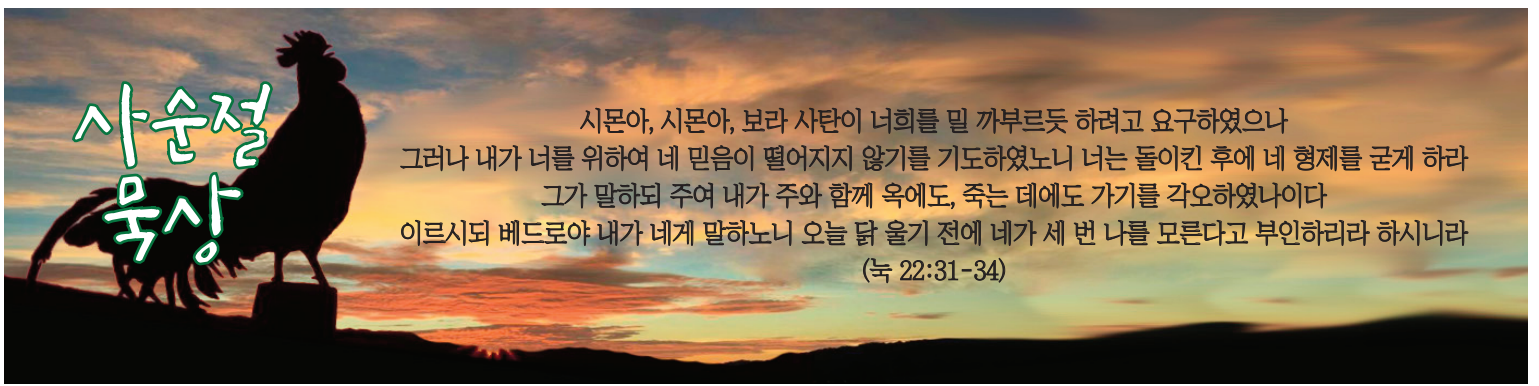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5:24) 현재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지닌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 댓가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주고 싶어 못 견디신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머리에서만 머무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장로증원 무효 총회 재재심판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적법 사유로 각하

이○창, 은○장, 강○훈, 박○권 등은 그들을 선출한 공동의회가 당회의 장로 후보 추천권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 재재심판결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교회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박노철 목사 측은 지지 장로 소수의 한계를 벗어나 당회를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지지 교인들 15명을 장로로 불법 선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이 그 장로 임직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도 위 장로 선출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지지 교인들만 모여서 개최된 불법 공동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재재심판결을 하자 박노철 목사 측은 다시 이에 대하여 법원에 위 재재심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심리를 종결한 후 무려 6개월 만인 지난 3월 18일(수)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위 각하결정문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당사자 중 1인인 서울강남노회 황○환 노회장은 위 재재심판결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위 판결의 효력 유무를 다룬만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고, 나머지 당사자인 이○창, 은○장, 강○훈, 박○권 등은 그들을 선출한 공동의회가 당회의 장로 후보 추천권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 재재심판결의 효력여부와 관계없이 서울교회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재심판결의 무효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장로임직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102회기 재심판결만을 앞세워 총회에서는 장로로 인정하였다고 하고 서울강남노회도 적법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교회 내외에서 여전히 장로로 활동하고 호칭하던 15인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불법 주장을 계속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9카합2139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재재심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제 권 자	1. 황 환 2. 이 창 3. 은 장 4. 강 훈 5. 박 권
채 권 자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이 규
채 무 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5. 14. 채권자 황 환을 피재제심청구인으로 하여 한 예총재판국 재제심 제102-20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2020. 3. 18.	
재 판 장	판 사 한 환
	판 사 박 미
	판 사 박 훈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조정옥·홍석현 김태원·조상희 장창수·박혜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호산나애견직업훈련센터 애견호텔 운영

1. 전문 훈련사 24시간 관리
호산나대학 부설기관에서 운영 관리
2. 최대의 실·내외 호텔 놀이터(운동장)
2019년 9월 신규 오픈 및 가평 최고의 시설 보유
3. 개인 하우스 운영 및 무료 픽업
애견 크기에 따른 개인 Room 운영과 * 위생 특목 서비스
4. 입실 시 항체검사서 확인필
(검염, 파보, 홍역 / 결과 4 이상 시 이용 가능)
5. 문의 : 호산나대학 : 031-585-9184
010-6420-9307 박창점(전공학과장)





진솔한 생의 고백

우리 교회 박찬성 집사(1교구)님이 수필집 '변장한 축복'중에서 '어머니의 거울' 외 1편이 '월간 한국수필'의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다음은 월간 조선에 실린 인터뷰 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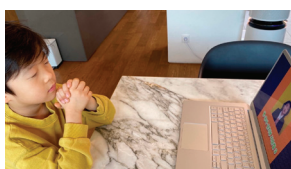
금융인 박찬성(朴贊星·73)씨가 70대의 나이에 등단한다. 한국수필가협회의 기관지인 「한국수필」은 오는 4월, 박씨의 저서 「변장한 축복」 중 「어머니의 거울」과 「바둑 입문기」 두 편에 신인상을 수여한다.

「변장한 축복」은 산업은행에서 30년간 기획, 국제·국내 금융 등 업무 전반을 맡은 저자가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기록한 에세이다. 6·25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부터 그 난세(亂世)를 극복한 과정, 외환위기 때의 경험과 뉴욕 사무실을 직접 정리하고 돌아온 직후 발생한 9·11테러의 충격까지 실감 나게 담았다.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았던 그

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펜을 잡았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말마따나 '강냉이 튀밥'처럼 심심한 문체가 오히려 몰입감을 높인다. 소설가 박찬순은 서평에서 "그의 진솔한 생의 고백이자 생생한 금융 현장의 이야기가 독자의 가슴을 울린다"고 했다.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는 "치열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청·장년 시절을 지나 어언 고회에 달하는 친구의 삶이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고 했다.

박찬성씨는 "늦깎이 등단 소식이 신장년(新壯年)이라 불리는 70대 동년배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무건 예배드렸어요~



김수아·레아 예배드렸습니다!



오수빈 예배드립니다!



하민이도 예배드렸어요!



김재윤·재경 예배드렸어요!



김하진·하윤 예배드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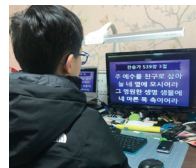
최은성 예배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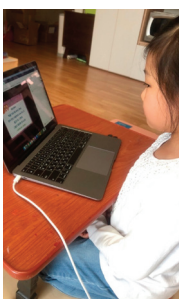
연우·건우 예배드렸습니다!



하람·하을 예배드렸습니다!



도윤이도 예배드립니다!



한세희 예배드려요



이연서 예배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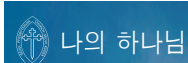
권도영



노윤·노준



배은찬·배은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김해영 권사(9교구)

고난이라고도 하고
아픔이라고도 부르는
돌맹이들이
발 밑에 깔려 있고 바람이 불니다.

음이 그날에
젓더미에 파묻힌
짓물 나며 썩어 가는 몸뚱이와
입에 재갈 물리지 않은
세 친구 앞에 온전히 홀로 섰을 때

신앙의 선진들이
옥중에서
가위로 뼈를 찌르는
추위와 고독 속에 홀로 밤을 지낼 때

인간과 땅과
그들이 원하는 선상에서
가슴 틀어 막으며
달려드는 것들과 뒤영켜
몸서리 치고 앉아 울었을 뿐이면
그저
안타까운 사연이었겠지요.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흩어지는
한 줌의 재와 흠이불 한 장
그것이 광야 인생에 손에 든 전부
혹독한 목숨을 비루하게 닦으며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넌을까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말도 노래도 생각도
단순하게 주님께만 드리고
주님 등에 업혀
속삭이며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그러나 아주 강렬한 불 가운데
순도 높은 한 줄기
영혼의 눈을 뜨고 천국까지 이르는 길

이 광야에
엮혀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꽃과 새들과 황금 길
부드러운 바람 달콤한 내음
따뜻한 주님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다른 선상의 문
주님이 적어 놓으신 두꺼운 책
첫 장 첫 줄에 써 있는 쉽고도 비밀한
문을 열고 들어 가니
그 길이었지요.

순례자



김하준·은준·연준 예배드리며 찬양도 드렸어요!



유하연 동생과 예배드렸어요



이시우 예배 동참합니다!



오유민 찬양을동도 따라하며



오선아·승아예배드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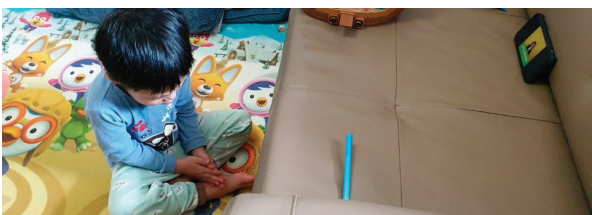
이윤익 예배드렸어요



이주호·윤후 예배 인증 샷!



최주하·무진 예배드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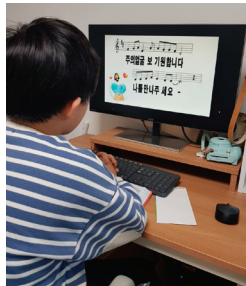
유치부 박준하 예배드렸습니다!



한예승 예배드렸습니다



하민·하준도 예배드렸습니다.



지성아도 예배드렸어요!



장유정 예배드렸어요



우정균·정서 예배드렸어요!

* 이주영·시우 : 온 식구 대 예배드리고 시우는 유·초등 예배도 드렸습니다.

- * 주하은·주하연: 예배드렸습니다.
- * 권도영: 우리 교회 선생님, 친구들 항상 건강하세요!!!
- * 김보민: 전도사님께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렸어요. 건강하세요~~~
- * 손재원: 예배 참석했습니다.
- * 윤서진: 예배드렸어요!
- * 김서연·김연우: 예배드렸습니다.
- * 라임이·준우·시우: 예배드렸어요^^

동정

- 당선 : 1교구 박찬성 집사 수필집 '변장한 축복'중에서 '어머니의 겨울' 외 1편 월간 한국수필 신인상 당선
- 수상 : 7교구 김은숙 권사 제8회 현대미술 작은그림축전 밀레상 수상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우리나라와 세계를 오늘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옵소서.
3.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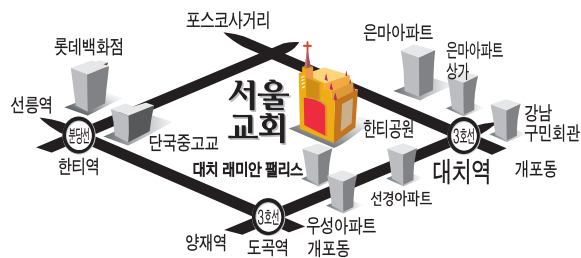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3일	월	삿 13-16		욘 35-42	
3월24일	화	삿 17-19		시 1-11	
3월25일	수	삿 20-21		시 12-21	
3월26일	목	룻 1-4		시 22-33	
3월27일	금	삼상 1-3		시 34-40	
3월28일	토	삼상 4-8		시 41-50	
3월29일	주일	삼상 9-12		시 51-65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